

증권업 동향 및 전망

박 용 린
금융산업실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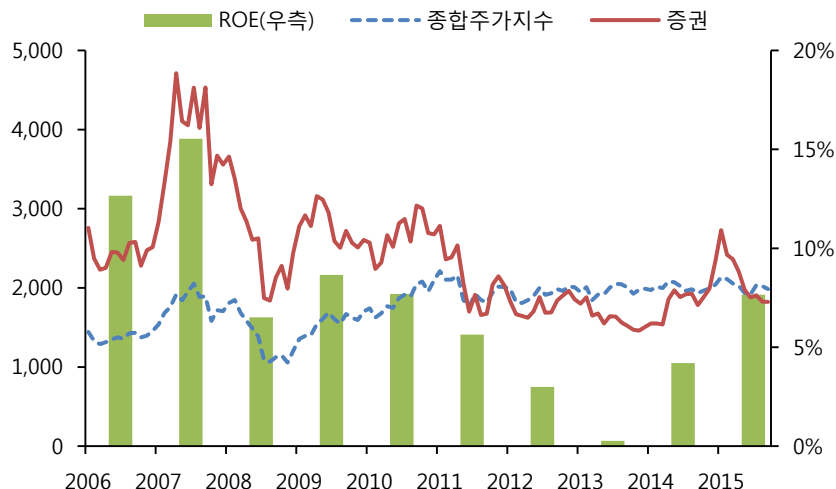
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수익성 (1)

❖ 2015년 증권업 수익성은 2014년 대비 상당히 개선되며 8% 수준의 ROE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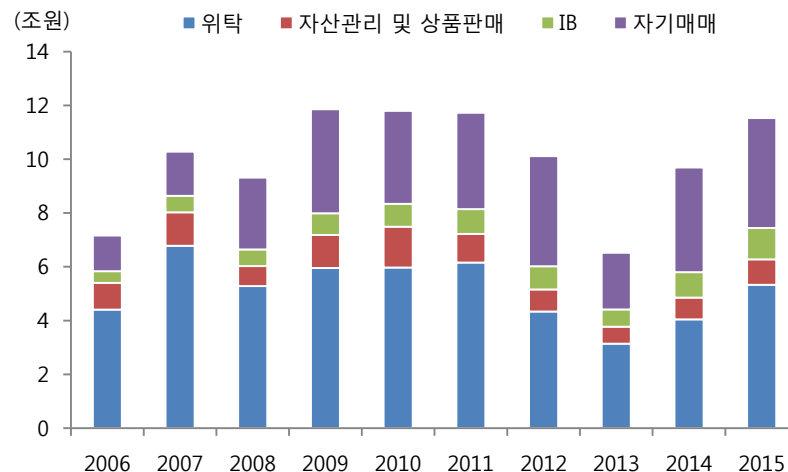
- 전반기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호조, IB 수익 증가, 인력조정 등을 통한 비용감소 요인이 작용
 - 2015년 3사분기 누적 순영업수익은 8조 6천여 억원
 - 위탁매매, IB 및 자산관리 부문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2014년 대비 27% 상승
 - 그러나, 금리안정화 기조에 따른 2014년 대비 채권평가익 감소 및 3분기 ELS 헤지손실 발생

국내 증권사 연도별 ROE 및 증권업 주가 추이



주 : 결산월 변경으로 2014년은 1월~12월 실적으로,
2015년은 비교를 위해 2014년10월~2015년9월 실적으로 계산.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, 증권업원내자료

국내 증권업 순영업수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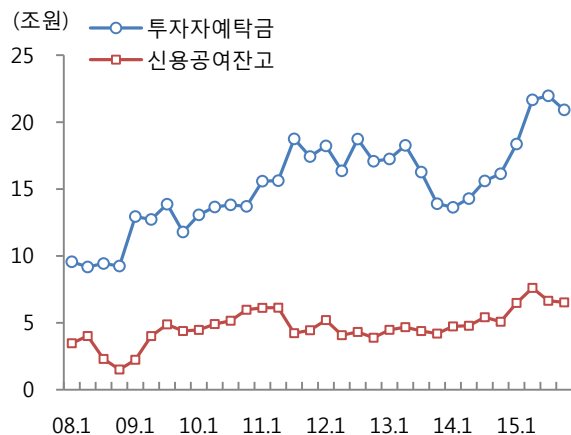
주 : 결산월 변경으로 2014년은 1월~12월 실적으로,
2015년은 비교를 위해 2014년10월~2015년9월 실적으로 계산.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, 증권업원내자료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수익성 (2)

❖ 2016년 증권업 수익은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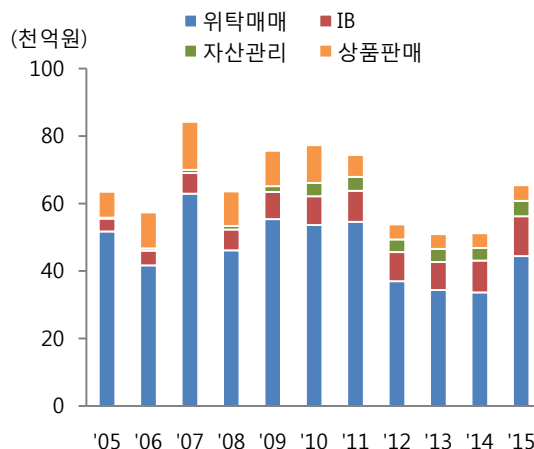
- 긍정적 요인으로서는 안정적 수수료 수입, 비용 효율성 및 자본활용도 상승(대형사 중심)
 - Money Move 등 건조한 주식시장 수요기반 및 IPO, M&A, 구조화금융 등 우호적 IB 시장환경
 - 과거 구조조정 노력 비용통제 지속
-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주식시장 불확실성 및 건전성 규제 강화
 - 주식거래대금의 평균 회귀 가능성
 - 레버리지 규제 시행으로 인한 ELS 시장 위축
 - 낮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채권평가의 감소

증권사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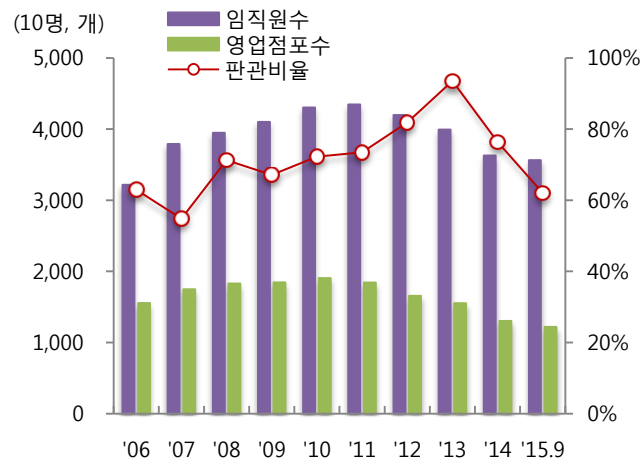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

부문별 수수료수익 추이



주 : 결산일 변경으로 2014년은 1월~12월 실적으로,
2015년은 비교를 위해 2014년10월~2015년9월
실적으로 계산.
자료: 증권업원내자료

증권업 비용 효율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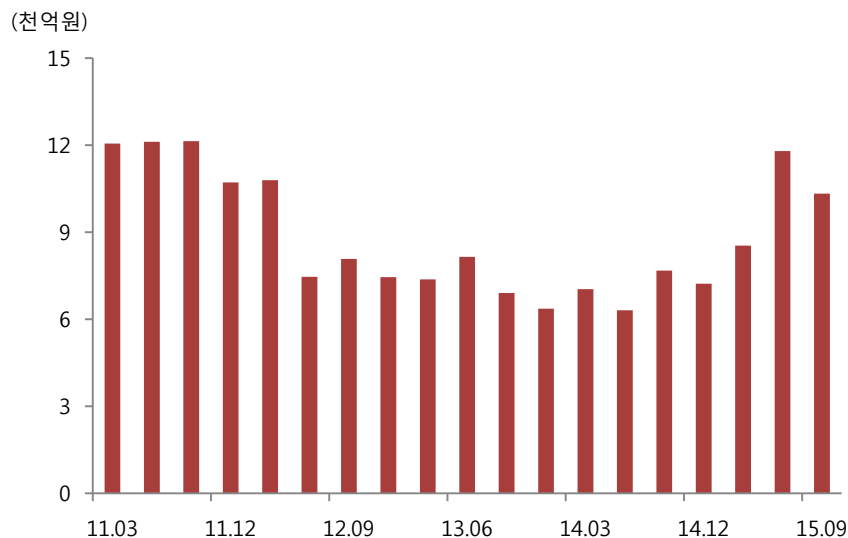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증권업원내자료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위탁매매 (1)

❖ 2015년 위탁매매 부문 수익은 2011년 수준으로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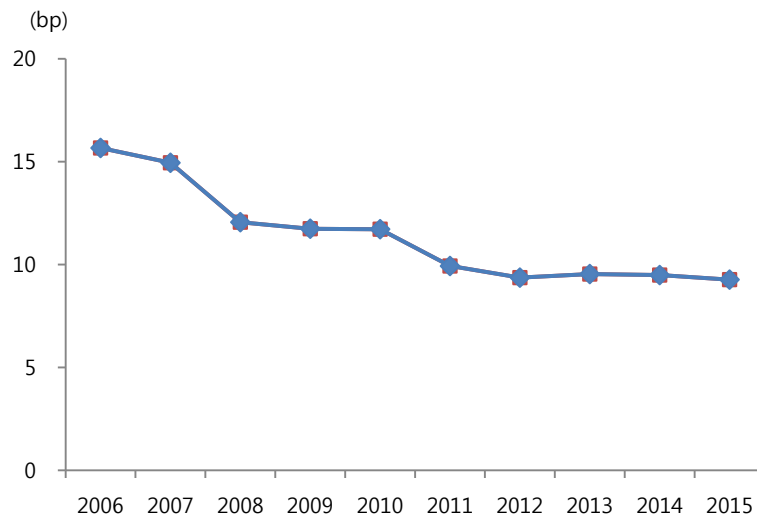
-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반등은 2015년 상반기 주가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
 - 2015년 하반기 위탁매매 수입은 상반기보다 소폭 (1%~2%) 감소 예상
- 거래대금 증가는 주가상승 뿐만 아니라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Money Move의 영향도 존재
- 경쟁 심화로 하락해 온 위탁매매 수수료율은 비용구조상 저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

위탁매매 수수료수익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

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율 연도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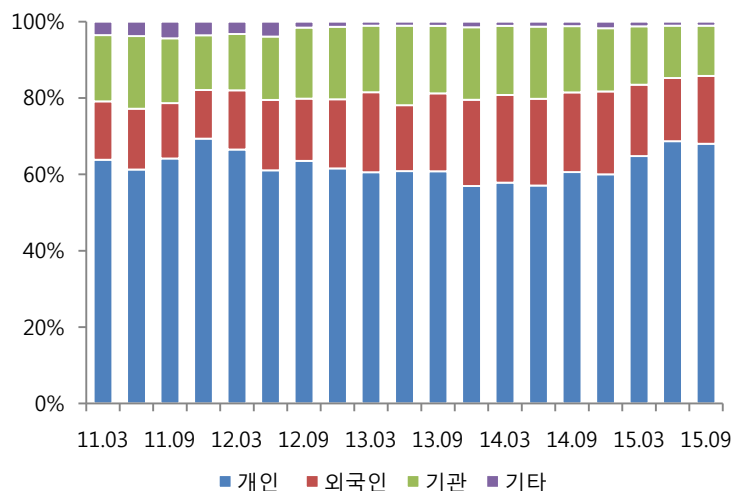
주 : 수수료율 = 지분증권 수수료/지분증권 거래대금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위탁매매 (2)

❖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증가는 개인매매 비중의 상승과 거래대금 및 매매회전율 증가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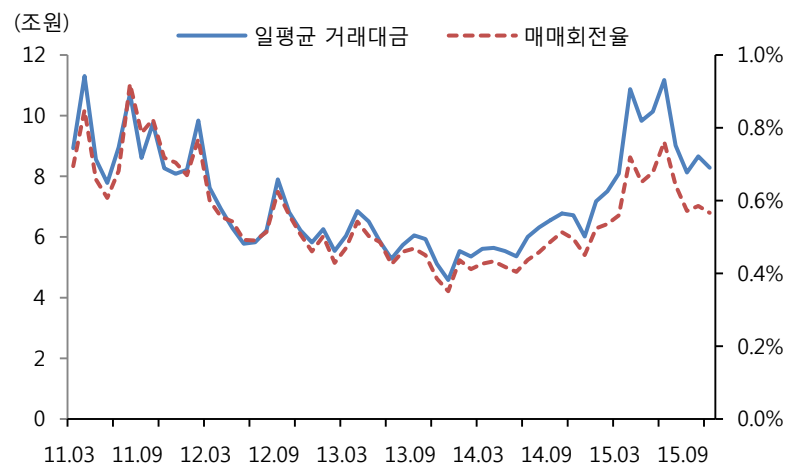
- 2015년 중반 주가상승으로 일평균 주식거래 대금 및 매매회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, 후반기로 오면서 주식매매가 다소 감소
- 그러나 거시경제 및 기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위탁매매 부문의 지속적인 활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입원의 다변화는 증권업의 지속적인 과제

주체별 주식거래비중



자료: 코스콤

주식거래대금 및 매매회전율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투자은행 (인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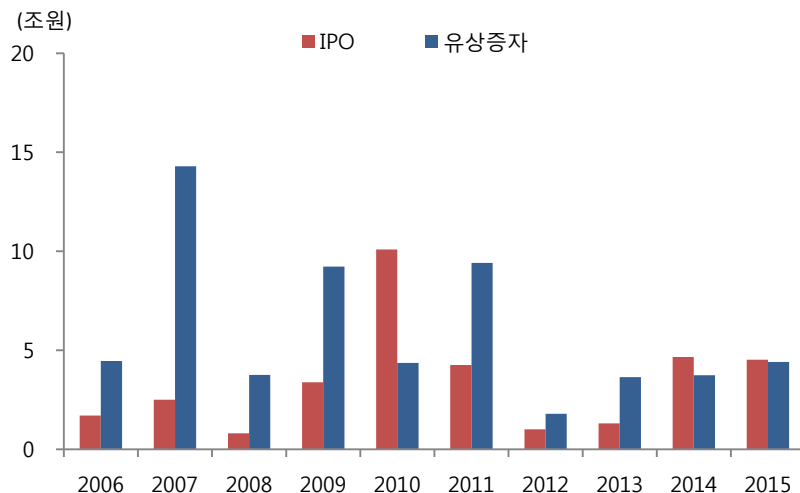
❖ 2015년 주식/회사채 발행은 전년에 이어 다소 활발한 모습

- IPO/유상증자는 거래소의 적극적 상장유치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
- 회사채 발행은 금리 하락과 더불어 증가하였으나 신용등급에 따른 양극화 현상 지속

❖ 2016년 발행시장은 IPO는 호조, 회사채는 침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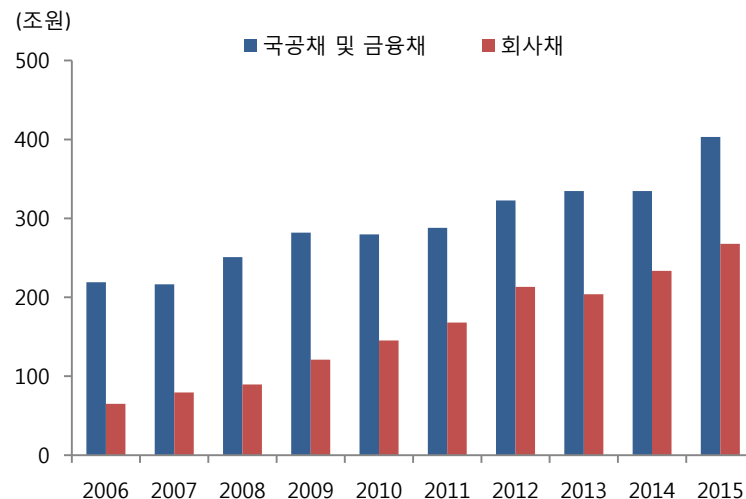
- IPO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 상장, 화장품·바이오 등 성장업종의 지속적인 코스닥 상장이 예상
- 반면, 회사채 시장은 금년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우량등급 회사채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초우량채를 제외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예상

국내 주식 발행 추이



자료: KIND,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국내 채권 발행 추이



자료: 코스콤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투자은행 (M&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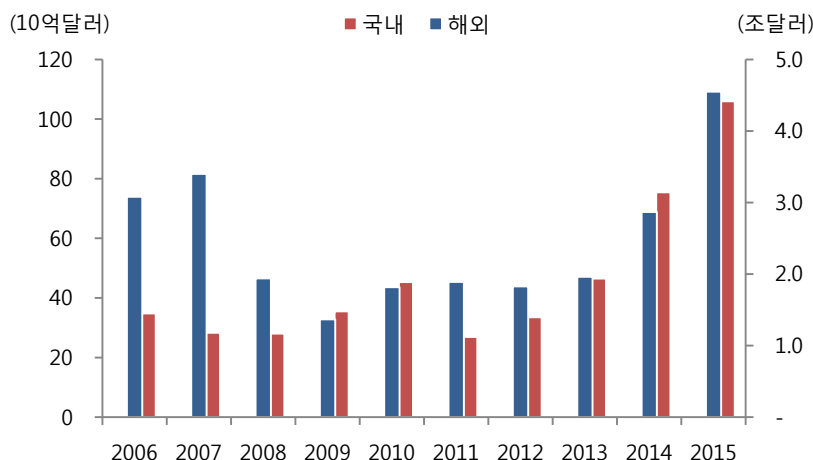
❖ 2015년 M&A 시장은 다수의 대형 거래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

-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(PEF) 모두 다양한 유형의 딜에서 활발히 투자
 - 삼성·한화 빅딜, OCI머티리얼즈, 동양생명, 홈플러스, 한라비스테온, KT렌탈, 팬오션 등
- 글로벌 M&A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시장규모를 기록
 - 기업실적 개선, 저금리, 주가상승 등 우호적인 자본시장 여건 속에서 미국과 영국 기업이 M&A 거래를 주도

❖ 2016년 M&A 시장도 시장규모 및 자문수수료 수입 성장세 지속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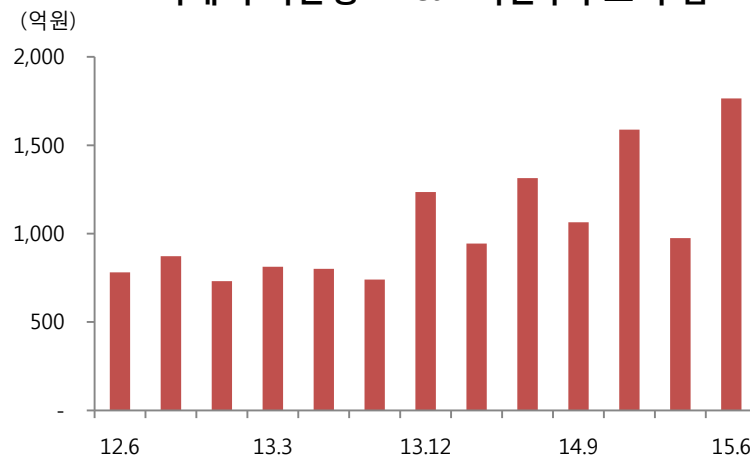
- 대기업 사업구조 개편 의지와 PEF의 왕성한 투자활동 지속, 전략적-재무적 투자자 간 경쟁 확대
- 대형사를 중심으로 안정적 고수익 인수금융 업무 강화 예상

국내 및 해외 M&A 시장 추이



주: 부동산 인수 포함
자료: Bloomberg

국내 투자은행 M&A 자문수수료 수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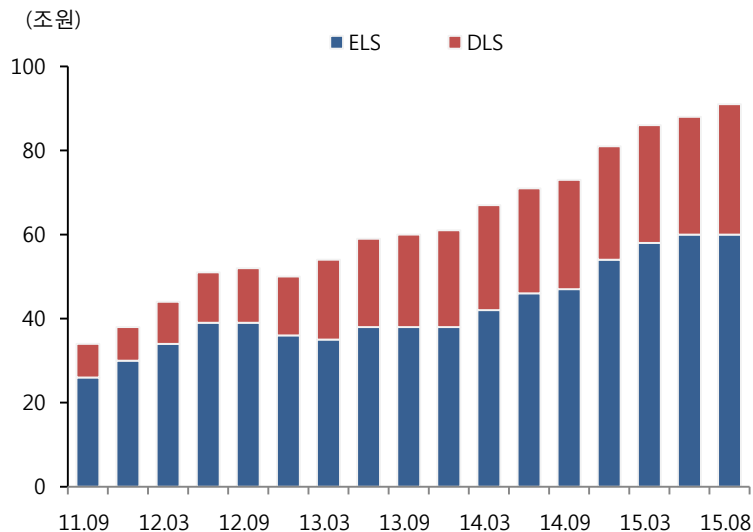
자료: 증권업원내자료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상품판매·자산관리 (1)

❖ 2015년 대표적 중위험·중수익 상품인 ELS/DLS와 채권형 펀드 판매 확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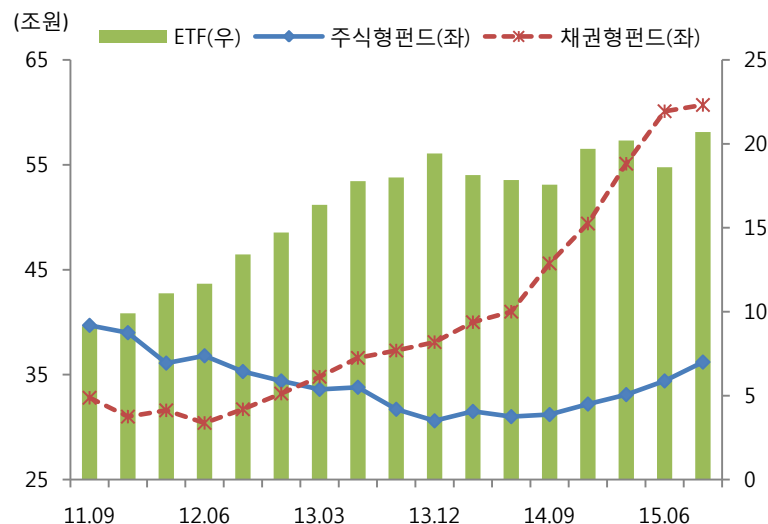
- 2015년 ELS/DLS 판매는 저금리 추세에서 초과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몰리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최근 ELS/DLS 성장세 둔화
- 안정적 수익 선호에 따라 채권형 펀드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, 주식형 펀드의 부진은 지속되는 가운데 소폭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ETF도 완만한 성장세

ELS/DLS 발행잔액(미상환잔고)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펀드 유형별 판매 잔액 및 ETF 순자산총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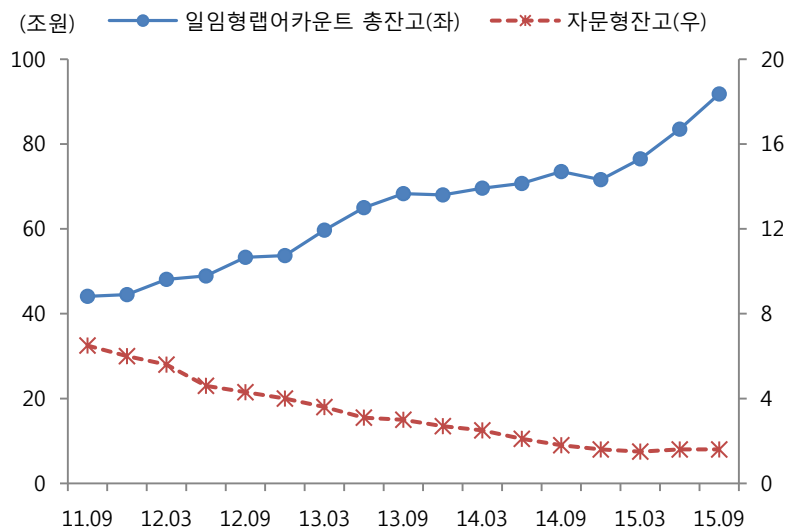
주 : 펀드 판매잔액은 증권회사에 한함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한국거래소

증권업 추세 및 전망 : 상품판매·자산관리 (2)

❖ 또한, 자산관리 분야 중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성장세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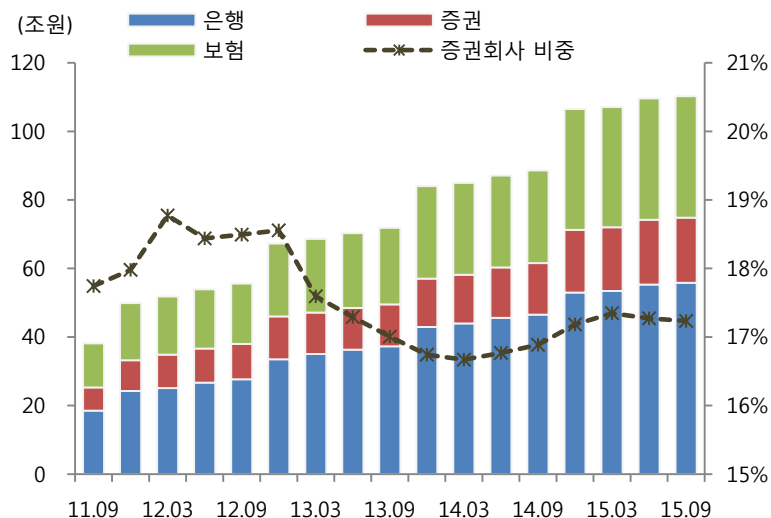
-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, 소액의 개인들이 주로 투자한 자문형랩의 경우 수익률 하락으로 위축세가 지속
- 기관·연기금 수요를 바탕으로 한 일임시장 증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한편, 퇴직연금 권역별 적립금 중 증권사 비중은 소폭 상승에 그침

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퇴직연금 권역별 적립금 및 증권회사 비중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2016년 증권업 정책 환경

❖ 2014년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국민 자산축적을 위한 일련의 정책에 이어 2015년에도 금융투자업 IB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 발표되며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

—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(금융위 10.14)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(자기자본의 100%까지)
-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육성
- 사모시장 육성을 위한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제 완화
-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
-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(헤지펀드) 운용 허용
- 담보증권 재활용
-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,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등

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 (금융위 8.6)

- 2015년 ISA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며 2016년 시행 예정
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개인이 직접 구성·운용하는 비과세 계좌로서 예적금, 펀드, 파생결합 증권 편입 가능하고 계좌내 상품 교체가 가능하며, 계좌내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저율 과세
-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저금리 추세로 인해 증권사의 수혜 예상

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(금융위 2014년 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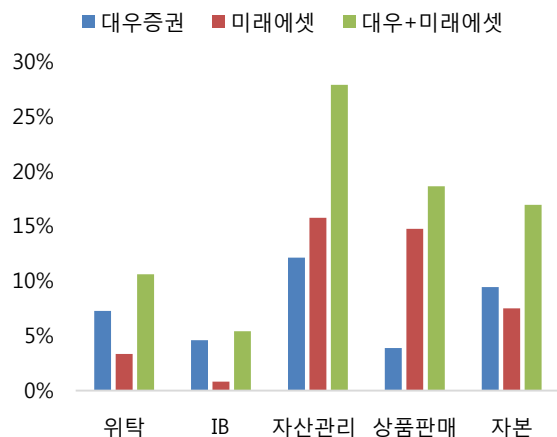
-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
- 저금리 환경에서 DC형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증권사 수혜 예상

2016년 증권업 이슈 (1) : 미래에셋-대우 합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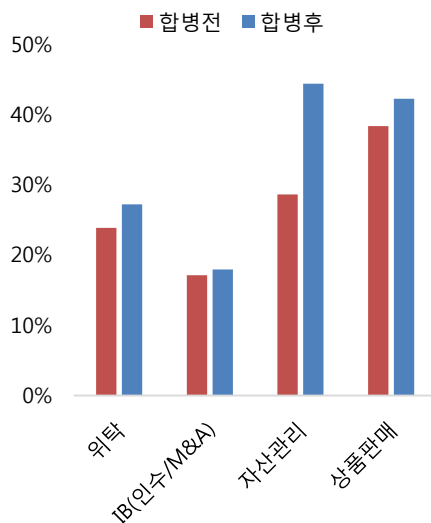
❖ 최근 미래에셋의 KDB대우증권 인수는 실질적 대형 투자은행 출현과 시장선도 가능성을 시사

- 자산관리 부문과 자본력에서 점유율 확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IB업무 및 자산관리 부문과의 연계 등 향후 자본력 기반의 영업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예상
 - 미래에셋그룹은 자산관리와 자산운용 등의 강점과 해외진출 의지 및 경험 보유
 - 대우증권은 브로커리지 및 IB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로커리지 및 해외 네트워크가 강점
- 상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IB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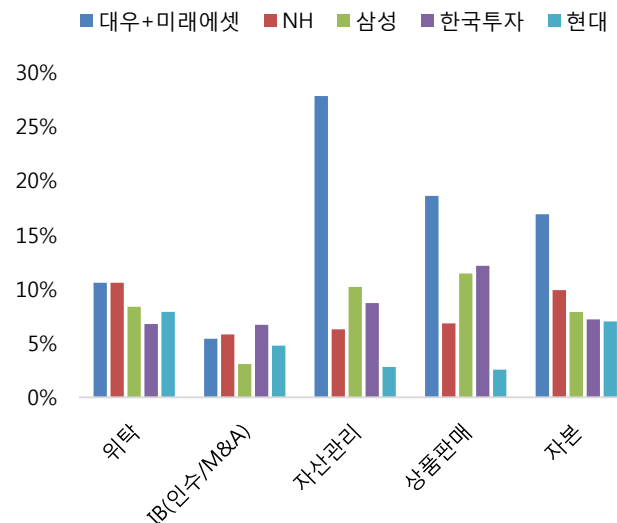
미래에셋-대우의 합병 전후
시장점유율 변화



상위 3사 시장점유율 변화



사업부문별 상위 5사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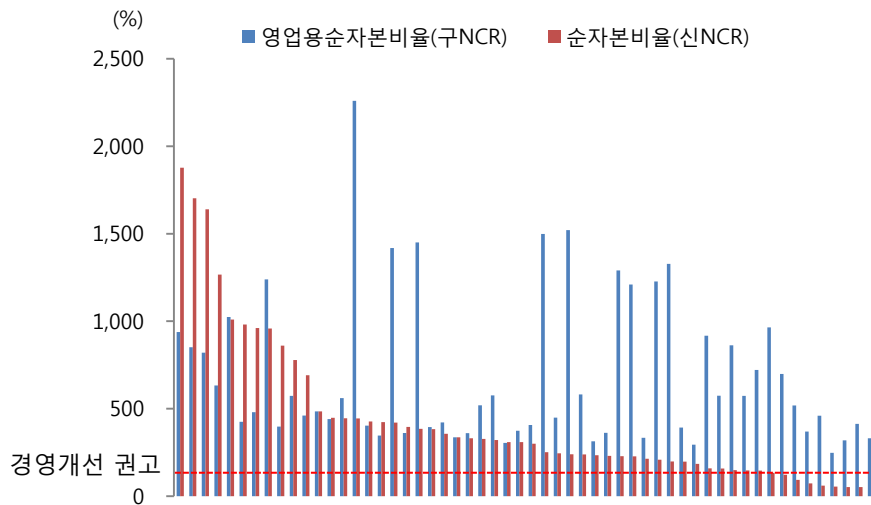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2016년 증권업 이슈 (2) : 재무건전성 규제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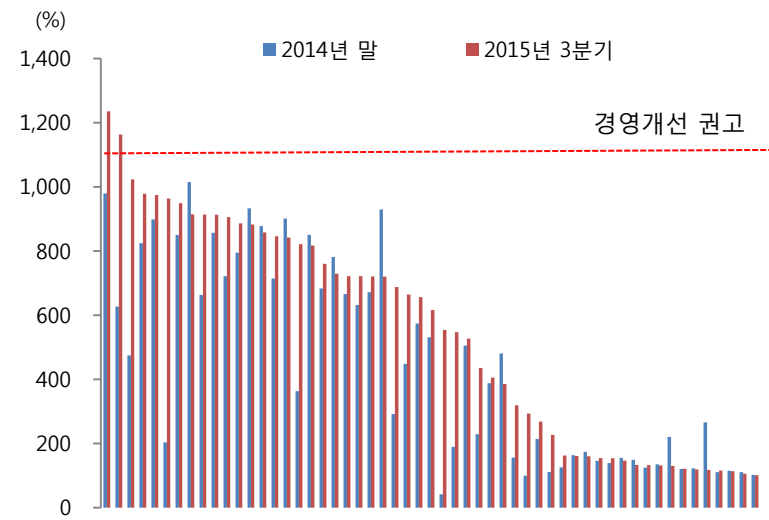
❖ 2016년 순자본비율(신NCR) 및 레버리지 규제 시행과 맞물려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고조

- 2015년 9월 증권사 평균 순자본비율은 427%로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본여력 확대 가능
 - 반면 일부 소형 증권사는 경영개선 권고에 해당
- 2016년 증권사 위험요인 부각 우려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대응
 - 최근 ELS 기초지수의 쏠림현상 및 지수급락에 따라 ELS 투자자 손실 및 증권사 헤지손실 발생
 - 기타 부동산 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

증권사 순자본비율 현황 (2015.9)



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현황



2016년 증권업 이슈 (3) : 핀테크 혁신의 지속

- ❖ **2015년 핀테크가 새로운 금융화두로 제기된 이후,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, 인터넷전문은행 신설, 크라우드펀딩법 통과 등 주요 핀테크 혁신의 진전이 나타남**
 - 2016년 3월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독자적 고객확보 가능
 - 온라인 펀드 및 향후 ISA 등의 판매에 긍정적 역할 기대
 - 2015년 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로 증권업계 틈새시장 발굴기회 확대 기대
 - 한국카카오은행 (한국투자증권 참여), K-뱅크(현대증권 참여)가 2016년 하반기 출범 예정
 - 출자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업무제휴 및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
 -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업체 중심으로 소액투자 확대 예상
- ❖ **2016년에도 핀테크 혁신의 지속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의 점진적 구조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**
 - 자산관리 중심의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서비스 개선 경쟁이 예상됨
 - 자산관리의 로보어드바이저,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등 20여개 핀테크 기업 활동 중
 - 코스콤 Open API 개발로 핀테크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

2016년 증권업 전망 : 종합

- ❖ **2016년 증권업은 시장환경 및 규제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험관리와 자본여력을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**
 - **2015년 증권업 수익성 개선 추세의 지속보다는 소폭 악화 예상**
 - 2016년 ELS/DLS 발행감소와 금리하락 추세의 소멸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익 및 운용수익 감소
 - 양호한 주식시장 거래대금 및 회전율, 그리고 IB 시장 성장에 따른 위탁매매 및 IB 수수료 수입이 수익성 악화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
 - **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여파로 위험관리에 중점**
 -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으로 ELS/DLS 발행 감소 예상
 - 그러나, 순자본비율 기준 자본 여력이 확대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투자 등 시장확대 노력 예상
 - **우호적 정책환경 및 시장환경에 기반한 전략 사업부문의 강화 예상**
 - ISA 등 자산관리 부문 강화 및 지속적인 퇴직연금 시장 공략
 - M&A 활황에 따른 인수금융 및 기업신용공여
 - 부동산 및 PF 구조화증권 관련 IB 업무
 - 헤지펀드 운용 및 프라임브로커리지 강화
 - 기타 지속적인 해외업무 확대
 - **증권업계 구조조정의 지속**
 - 인력 및 점포 등 판관비의 상시적 긴축
 - 매각 절차 진행 중인 리딩, LG 및 현대, 이베스트, 골든브릿지 증권 등 기존의 M&A 매물



End of Doc

